

# 동성그룹, 화인텍 인수 성장발판 마련

외형 확대에 우레탄 사업 시너지 ... LNG선 초저온 보냉재 전문생산

부산 소재 화학기업 동성그룹이 LNG(액화천연가스)선 초저온 보냉재 전문기업 화인텍을 인수함으로써 그룹의 성장기반을 마련했다.

동성그룹은 지주회사인 동성홀딩스를 통해 화인텍 지분 29.02%(580만주)를 481억5000만원에 인수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지분율이 34%로 확대돼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11월10일 발표했다.

동성그룹 관계자는 “2009년 5월 창사 50주년을 맞아 신 성장동력으로 그린과 바이오, 화학분야를 선정한 이후 화인텍을 인수하게 됐다”며 “동성그룹과 화인텍의 화학분야를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성그룹의 모체인 동성화학은 신발용 우레탄(Urethane)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화인텍 역시 조선 기자재용 우레탄 분야에서 국내 1위를 달리고 있어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화인텍은 2008년 3800억원의 매출을 올려 동성그룹의 전체 매출 4000여억원과 맞먹는 기업규모를 가지고 있어 인수·합병을 통한 그룹 전체의 외형 성장도 기대되고 있다.

동성그룹은 창사 50주년 행사에서 2013년까지 매출액 1조원, 2020년까지 3조원을 달성하겠다는 중장기 성장목표를 설정했으나 화인텍 인수로 매출 1조원 달성을 2011년으로 2년가량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성그룹 전대현 기획실장은 “추가적인 인수·합병과 그룹 자회사를 통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며 “화인텍 인수와 함께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그룹의 중장기 성장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부산의 대표 화학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1/10>